

광주 소매·유통업 체감경기 찬바람 쌩쌩

3분기 경기전망지수 87...기준치 100 하회 인건비, 금융, 물류비 등 비용 상승 우려 높아

광주지역 소매유통업체들의 체감경기가 2년 연속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광주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최근 광주지역 47개 소매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024년 3분기 소매유통업 경기전망지수(RBSI)"는 87로, 지난 분기(80)보다 7p 개선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준치(100)를 하회하면서 '경기부진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3분기가 방학 휴가시즌, 명절 등 시기적으로 성수기에 진입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물가 고금리 기조로 인한

소비 부진 및 업계 수익성 악화가 지속되는 데다 중국계 이커머스의 급성장 등 채널 간 경쟁까지 심화되면서 향후 경기를 부정적으로 내다본 것으로 분석됐다.

소매유통업 경기전망지수(RBSI: Retail Business Survey Index)란 유통업체들의 현장 체감경기를 수치화한 것으로, 지수가 100을 넘으면 다음 분기 경기가 이번 분기에 비해 호전될 것으로 예상하는 기업이 더 많음을 의미하며, 100 미만이면 그 반대임을 뜻한다.

실제로 다음 분기 경영활동 시 우려되는 가장 큰 현안 및 애로사항으로 가



장 많은 업체들이 '인건비, 금융, 물류비 등' 비용 상승(29.8%)을 꼽았으며, 이외에도 '시장경쟁 심화(21.3%)', '고금리 지속(21.3%)', '상품 매입가 상승(12.8%)', '(알리, 테무 등) 중국 온라인플랫폼 국내 진출 확대(10.6%)', '기타(4.2%)' 등을 우려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 소매유통업체들의 체감경기 부진이 지속됨에 따라 응답업체들을 대상으로 올해 상반기 대비 하반기 국내 소

비시장 전망에 대해 조사한 결과, 가장 많은 48.9%가 '상반기보다 악화될 것'이라고 답했으며('다소 악화' 31.9%, '악화' 17.0%), '상반기와 비슷할 것(42.6%)', '상반기보다 호전될 것(8.5%)'('다소 호전' 6.4%, '호전' 2.1%)이라는 응답이 뒤를 이었다.

올해도 고금리 고물가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응답업체들의 대응 현황에 대해 조사한 결과 '저가상품 확대(25.5%)', '별다른 대응을 하고 있지 않음(21.3%)'이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으며, 이외에 '포인트 환원 등 구매자 혜택 강화(14.9%)', '판매가격 인하(12.8%)', 'PB상품 강화(10.6%)' 등을 통해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가 상승으로 인한 매입가 등 외부인상요인에 대해서는 응답업체들의 4

8.9%가 '매입가 등 외부 인상분만큼 판매가격을 인상하고 있다'고 답했으며, '외부 인상분보다는 낮게 판매가격을 인상하며 최대한 가격인상을 자제하고 있다(25.5%)'는 답이 뒤를 이었다. 이어 '외부 인상요인에도 기존 판매가격을 유지하고 있다'는 응답은 17.0%를 차지했으며, '외부 인상요인 및 (인건비, 관리비 등) 내부 인상요인을 모두 판매가격에 반영하고 있다'는 응답은 6.4%에 불과했다.

한편, 최근 알리, 테무 등이 저가상품 및 적극적인 마케팅 등으로 국내 시장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음에 따라 이러한 중국 온라인플랫폼의 국내 진출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응답업체들의 70.2%가 '중국 온라인플랫폼은 현재는 물론 향후 잠재적인 경쟁상

대'라고 답했으며, '현재도 앞으로도 경쟁해야 할 상대는 아님(21.3%)', '지금은 경쟁상대지만 향후에는 아닐 것(6.4%)', '잘 모르겠음(2.1%)'이라는 답변이 뒤를 이었다.

광주상공회의소 관계자는 "경기 부진과 금리 물가 등 경영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와중에 중국 유통업체들까지 국내 산업을 잠식하면서 지역 소매 유통업체들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는 상황"이라며 "오프라인 유통업이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는 만큼 지역 유통업체들이 상생 협력할 수 있도록 민생안정과 최소한의 규제완화 등 제도적 지원이 절실하며, 기업들 또한 품질 고집과 차별화된 시장 공략 등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임채만 기자



상반기 국적항공사 승객 역대 최대... 올해 국적 항공사를 이용한 국내·국제선 여객이 상반기 기준 역대 최다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항공 등 국적사 10곳의 항공편을 이용한 승객은 4천756만여명으로, 이는 지난해 상반기(3천683만명)보다 29.1% 증가한 수치다. 사진은 8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출국장 모습. /연합뉴스

고객관리부터 홍보까지...KT 'AI링고전화' 소상공인 인기

출시 후 호남권 300여개 매장 선택

KT 전남전북광역본부부는 8일 "바쁜 소상공인을 위한 똑똑한 서비스 'AI링고전화'가 올해 1월 출시 이후 소상공인의 필수 상품으로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KT의 'AI링고전화'는 매장으로 걸려오는 문의 전화부터 가게 홍보, 고객관

리까지 바쁜 소상공인의 고민을 해결해주는 패키지 서비스이다. 소상공인이 원하는 내용을 음성 통화 연결음으로 직접 제작할 수 있고 소상공인 업종과 니즈에 맞춰 실제 성우가 녹음한 통화 연결음으로 가게를 홍보할 수 있다.

또한 착신전화와 담겨받기가 가능할 뿐 아니라 바쁜 시간대에 걸려온 전화를 대신 받고 부재중 전화는 메모해주

는 'AI통화비서 라이트' 서비스 패키지를 통해 고객에게 바로 콜백할 수 있어 한 통의 전화도 놓치지 않는 고객관리가 가능하다.

순천, 전주 등 7개 KT플라자에서는 일반전화보다 'AI링고전화'를 더 많이 신청해 현재 호남권 300여매장에서 사용하고 있으며 다양한 업종으로 빠르게 늘고 있다. /안태호 기자

광주은행-토스뱅크, 공동대출 서비스 개발

업무협약 체결...3분기 중 출시 금융소비자 보호·혜택 제고

광주은행은 8일 "최근 서울 토스뱅크 사옥에서 지난달 28일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광주은행-토스뱅크 공동대출 서비스'의 출시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양 은행은 금융소비자 보호 및 혜택 제고를 위한 상품 개발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광주은행이 그동안 비대면 개인신용대출을 운영하며 축적한 데이터 및 운영 노하우와 토스뱅크의 금융·비금융 데이터를 활용한 신용평가모형이 결합해 보다 정교한 대출심사로 고객들에게 합리적인 대출한도와 금리를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추진중인 공동대출 서비스는 개인 신용대출 상품으로, 소비자가 하나의 플랫폼(토스뱅크 앱)에서 대출을 신청하면, 각각 대출심사를 한 뒤에 함께 대출한도와 금리를 결정하고, 토스뱅크 앱에서 한 번에 대출 실행을 하는 서비스로, 대출한도는 5000 비율로 공동 제공할 예정이다.

서비스는 올해 3분기 중 정식 출시할 예정이며, 상품이 출시되면 광주은행



은 지역 영업망에 국한되지 않고 토스뱅크의 플랫폼을 기반으로 영업망 확대와 양질의 대출 포트폴리오를 확보

하고, 토스뱅크는 광주은행의 대출 공급 여력으로 안정적인 대출을 지속적으로 공급해 성장기반을 확대하는 등 두 기업 모두 '윈윈(win-win)'의 성과를 도출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공동대출은 은행간 대출 업무 위주부터 최초의 사례로서, 시중은행 중심의 과점적 구조에 변화를 줄 뿐

만 아니라 은행권 전반에 '빅블러(Big Blur)'를 만들어 갈 전망이다.

고병일 광주은행장은 "양 은행이 각고의 노력 끝에 혁신금융 서비스 지정에 이어, 상품 출시를 위한 긴밀한 협약을 맺게 돼 매우 기쁘다"며 "앞으로 더 많은 고객들이 편리하고 합리적인 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공동대출 상품 뿐만 아니라 더욱더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채만 기자

에너지 절약 및 청렴문화 확산 캠페인

지구를 살리는 에너지절약 실천요령

- 3시간 이내 적정온도 유지하기(여름철 26도, 겨울철 20도)
- 동일 사용하지 않는 조명 소등하기
- 선풍기 사용하지 않는 전자제품 플러그 뽑기

한국에너지공단 광주전남지역본부

후끈한 열기! 시원한 샷~!
이보다 더 좋은 운동이 있을까요?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스포츠

파크골프 무료레슨

전일파크골프 | 광주광역시 서구 천변차로 26(전일상사 2층) | 문의 062)368-5779 / 010-4645-5778